



굴비 35% ↓
〈1200억→780억〉

한우 31% ↓
〈149억→103억〉

전복 40% ↓

법에 묶이고 불황에 끄떡 농수축산물 설 매출 급감

전남도, 소비축진 행사 나서

경기침체와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설 연휴기간 전남산 농수축산물 소비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굴비, 한우, 전복 등 인기가 높았던 선물세트 판매가 크게 줄면서 지역 농어민, 농수축산 유통업체 등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추석, 설 연휴기간 1년 매출의 88%가 팔려나가던 굴비 매출이 지난해 설 연휴기간 매출 1200억원에서 780억원으로 420억원(35.0%) 급감했다. 5만원 이상 고가 상품에서 미만의 저가 상품까지 모두 매출 부진을 면하지 못했다.

전남산 한우 역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지난 1월 2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내 축협 판매장에서 판매된 한우는 모두 103억원 어치에 불과했다. 지난해 설 연휴 전(1월13일~2월 9일)까지 149억원 어치가 팔린 것에 비해 46억원(30.9%)가 줄어든 것이다.

전복의 경우 주산지인 해남, 진도, 완도, 신안 등의 10여 개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모니터링한 결과 매출의 30~40%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복 이외에 김, 미역, 멸치 등 주요 수산물 매출도 2015년 같은 기간보다 5만원 미만 제품은 10%, 5만원 이상 매출은 1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전남도가 남도장터, G마켓 등에 내놓은 5만원 미만의 저렴한 선물세트는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체 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미만을 주로 내놓아 인기를 끌었다. 남도장터 1억700만원, G마켓 등이 1억9100만원 등 모두 2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1억4500만원)보다 1억5300만원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향후 소비축진 행사 및 소포장제품 지원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농협 등 생산자 단체 및 농가에서도 5만 원 이하의 다양한 선물을 제작,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판매 등 유통비용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법 시행의 영향으로 한우, 굴비 등 주요품목의 소비가 실제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농수축산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수축산물 제외의 또는 피해 우려 일부 품목 조정, 선물 기준액 인상 등을 요구하는 한편 5만원 이하의 소포장 상품 개발에 필요한 소포장 추가 비용과 택배비 등 물류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선물 안 주고 안 받기와 저렴한 선물 하기가 정착되면서 전남산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쪼그라들었다"며 "농어민은 물론 유통업체마저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 기간 9차례 방문
특전사령관 정호용
광주서 무엇을 했나 ▶ 6면

KIA 오키나와 스프링클러 돌입 ▶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영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벚꽃대선’ 일단 3각 구도로 출발



다가오는立春...봄이 오는 소리 입춘(4일)을 앞둔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화훼단지에서 직원들이 화사하게 피어난 '쥘리안' 꽃을 살펴보고 출하 준비를 하고 있다. 쥘리안은 우리말로 '앵초' 또는 '취란화'라고 불린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문재인 대세론 앞세워 질주 안철수·손학규·정운찬 '제3지대' 반기문+보수 '제3지대'도 관심

조기 대선이 유력시되면서 대선시계가 빨라진 가운데 대선전 초반은 3각 구도로 흘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즉, 조기 대선전의 틀은 크게 ▲'문재인 대세론'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야권 성향 제 3지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제 3지대 등 3각 축으로 형성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이 독자 후보를 낼 태세고 새누리당 탈당세력인 바른정당이 일단 대선경선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지만 반 전 총장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보를 즉각 나서지 못하고 있어 주목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의 최대 수혜자인 제 1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 대세론'의 기세를 앞세워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어느 정당보다 빨리 나서며 대선 준비에 앞선나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거침없이 대선전 전면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지난 31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제

가 대세가 맞다. 사상 최초로 광주, 부산 등 영호남과 충청 모두에서 지지받는 '국민통합 대통령' 시대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하락에 고심해 온 국민의당은 손학규 의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접촉하며 제 3지대를 구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단 손 의장 측과는 통합에 상당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야권 성향의 '제 3지대·빅텐트'가 조만간 현실화할 분위기다. 또 정 전 총리와의 연대에도 적극 나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당 측은 이 '텐트'가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 민주당 내 반 패권 세력이 이탈, 그야말로 '빅텐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성향 후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반 전 총장은 개헌을 고리로 보수는 물론 진보세력까지 포함하는 빅텐트를 만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캠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제안에 대해 야권 측이 흥분을 하는 것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까지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 반 전 총장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5·18 축소·박정희 미화 그대로

국정교과서 최종본...장휘국 교육감 "폐기되는 날까지 싸우겠다"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됐다.

최종본은 '5·18민주화운동 축소', '박정희 독재 미화', '건국절 사관의 완성판' 등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현장 검토본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교육학계를 중심으로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일파를 탔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본은 중학교 '역사' 1·2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3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올라온 의견 중 중학교 역사 310건, 고교 한국사 450건 등 760건을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

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단순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 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 한계점 명시 등 내용을 크게 수정·보완했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역사·교육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미·내용 축소, 호남 의병 활동 노력 등의 문제점도 고쳐지지 않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 분량도 줄지 않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되는 그 날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점사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